

대한양계협회 소식

본회 연말연시 국군장병및 국민학교

어린이에 닭고기, 계란보내기 운동전개

본회가 전개한 닭고기, 계란보내기 운동에 호응하여 계산물을 전달하고 이를 본회에 연락한 업체및 양계인은 다음과 같다.

부국사료 (대표:한호섭), 계란10,000개

(인천축현국교:7,000개, 인천교

대류속국교:3,000개) 부

은 기정 (경기 양평 창대리):계란 3,150개



본회1979년도 정기총회 개최

— 오세정회장 사표 반려 —



본회 79년도 정기총회가 12월18일 오후 1시 부터 오후 5시까지 125명의 대의원 (위임 참석은 17명)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문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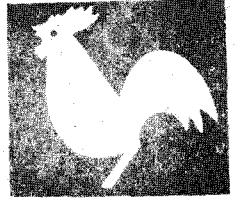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본회 오세정회장은 79년도의 양계업계가 극심한 불황속에서 유사 이래 제일 큰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도 낙관할수 없는 현실에서 회원들이 총화, 협력, 단결로 양계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내빈으로 참석한 축산단체연합회 유윤수회장은 그간 불황으로 인한 양계업계의 경제적, 심적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 양계업계가 보다 더 발전을 하려면 비축이나 수급조절이란 치유방법 보다는 생산자와 정부가 일치단결하여 기탄없는 의견으로 축산정책에 참여 할것과 자신만 혜택받는 단합이나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뭉침이 아닌 양계업계 전체의 안정과 이익을 위한 단합을 당부했다.

이어서 윤희직(전대 축대교수)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업계의 불황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집행부의 노고가 컸음을 치하하고 닭고기요리 보급활동 및 육계수매비축 사업을 79년도의 팔복할 만한 사업성과로 들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체 집행액중 회비수입이 4.3%로 매우 저조한 것과 확고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한 제반 건의사항(양계업계의 안정 및 군납과 소득표준을 인하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79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작년도에 제정한 양계산업대상이 협회의 예산부족으로서



상되지 못했으며 기념패 및 감사패,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감사패를 수여받는 동양부회장 박인수 씨

- 회갑기념패 : 이재근 (고대 축산과 교수)
 감사패 : 김경남, 구능완 (농수산부 축산과)
 최영선, 최원식 (서울시청 농축과)
 박순용, 이준영 (축산진흥회 업무부)
 김기석, 신동규 (가축위생연구소)
 이유방 (KIST 축산가공연구실장) 박영인 (미국사료곡물협회) 왕준연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송두진 (지산부 회장) 이희섭 (제일사료) 박인수 (동양부회장)
 공로패 : 이만조, 이병우, 조병환, 김영일 (부산, 경남지부) 황은현, 김태환, 안명수, 이종춘 (전남지부) 박옥용, 정병운 (전북지부) 이철우 (경기도 입북양계단지)

이러 사무국장으로부터 79년도 사업보고 및 79년도 수지예산가결산 보고가 있었으며 8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이 대의원의 만

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편 78년도 정기총회에서 재선되어 1년간 협회장직을 수행한 오세정회장은 전국대학교 축산대학 학장 보직과 일신상의 이유로 금번 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회장보선을 요청하였으나 대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표를 반려하여 80년도 잔임기간을 채우게 되었다.

또한 회원자격 및 구분과 의무에 관한 정관 제3장 제5조 및 7조와 임원 및 직원 제4장 제18조에 대한 정관개정안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날 총회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회장 왕준연)에서 준비한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로 시식회가 곁들여 시행되었다.

닭고기요리 특별 강습회 개최

— 닭요리 팜프렛도 발간 —



본회에서는 축산진흥회의 지원으로 지난 12월 17일 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서울YMCA

대강당에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연)와 공동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년시를 위한 닭고기요리 특별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왕준연 회장의 강의로 치킨브래드, 닭찜, 치킨파이 등 15가지 요리가 소개되었는데 1,350명의 주부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로스트치킨은 좋은 평을 받은 성탄절 요리였다.

본회에서는 또한 닭고기요리 팜프렛 7만부를 발간하여 서울지역 국민학교, 중등학교등을 통해 주부들에게 배포하였다.



△ 본회에서 만들어 서울지역 국민학교, 중등학교 등에 배포한 닭요리 팜프렛

○長篇叙事詩集○

黃土峴의 햇불

安道燮 著

- 菊版/豪華洋裝/240面
- 詩文房刊
- 定價 2,000 원

● 감오년 동학농민전쟁은 우리나라 근대 사상 가장 획기적인 장거였다. 그것은 국내외의 긴박한 狀況속에서 스스로의 역량과 결단에서 우러난 自主精神의 발굴로서 길이 받들어야 할 近代的 눈됨이다. 이역사적 장거의 리더로서 높이 햇불을 밝힌 농민의 영도자가 바로 녹두장군 金瑬準이다... 나는 이 叙事詩를 쓰면서 몇 번인가 소리없이 울고 또 몇번인가 한밤내 몸을 떨었다. 轟의 아들이요 太陽의 아들인 녹두장군은 그래서 내 피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後記에서 —

全國 有名書店에서
절찬리 판매중